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는 다시 재를 엮음으로써 시작되는 사순의 길을, 2023년 사순의 길을 출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 안에서, 재를 엮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오대륙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시리아의 여러 전쟁들과 통신 수단 면에서 우리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여러 나라들의 무력 충돌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남수단 같은 나라들은 통신 수단 면에서 우리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교황님의 최근 방문으로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재는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다른 모든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적 나약함을 의식하게 해 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하며,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길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은총의 시기인 사순 시기 안으로 들어가게 해 줍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도록 초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게 하며, 외적인 작은 것에서만 아니라 깊은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이 시기를 위한 세 가지 실천을, 곧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심화하도록 권고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시키고, 우리를 그분께 집중하게 하고, 우리가 적절한 질서를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노력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보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물질적 사물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식하게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공동체 생활에서 진정한 형제애를 가로막는 우리의 태도들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선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선,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자선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특히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연대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교황님은 사순 시기 담화에서 변모에 관한 복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타보르 산에 오르시면서 “유일무이한 사건의 증인이 되도록 선택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순의 여정은 “시노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스승님의 제자들로서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목적지는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변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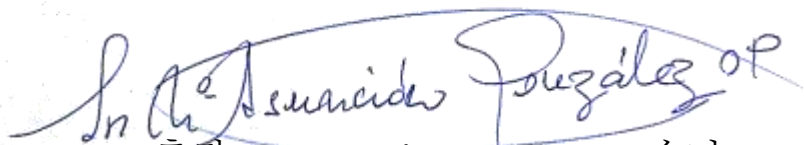
사순 담화에서 교황님은 우리에게,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두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매일 전례에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경청 역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일상의 수고와 어려움, 모순들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여 특별한 사건이나 주관적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도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걸어가면서 시노달리타스를 건설하도록 힘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예수님과 친교를 통하여 변모되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예속에서 벗어나며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도록 합시다. “변모된 이들로서” 우리는 복음적 책임을 갖게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과 확신을 지니고서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이 길에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부활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적 포용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r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